

36. 아파트 배관 단열 작업에서 발생한 비호지킨림프종

성별	남	나이	60세	직종	배관단열재설치	작업관련성	없음
----	---	----	-----	----	---------	-------	----

- 개요:** 국OO은 1987년 12월 (주)D에 입사하여 14년 8개월간 건물배관 단열재 설치작업을 하였다. 2002년 7월 23일 비호지킨림프종(T세포형)으로 진단 받고,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다.
- 작업환경:** 국OO이 근무하였던 (주)D은 보온단열재 중 유리섬유자재, 폴리에틸렌자재, 부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설치 및 시공은 일용직 근로자가 하게 된다. 작업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보통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이다. 매일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각 작업장을 25명이 나누어서 배관단열작업을 한다.
- 의학적 소견:** 국OO은 2002년 6월부터 기침, 목안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다. 2002년 7월 4일 우측 목에 물혹이 만져지고 발이 부어서 2002년 7월 6일 S의료원 방문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었다. 2002년 7월 16일 Y병원에서 편도 생검한 결과 종물이 의심되었다. 2002년 7월 19일 구인두부 전산화단층촬영을 한 결과, 양측편도, 혀기저부, 구인두부벽, 양측 경부 림프절을 침범한 림프종 또는 구인두부 암종이 의심되었다. 2002년 7월 23일 우측 경부 임파절 절개생검 및 복부, 둔부 전산화단층촬영상 복부전이는 없는 비호지킨림프종(T세포형)으로 진단 받았다. 2002년 7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차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받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다.
- 고찰:** 비호지킨림프종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되고 HTLV-1과 EBV가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제시된다. 직업적인 요인으로는 dioxin, phenoxyherbicides, pesticides, 머리염색약 등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고, 기타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로는 비소, phenoxyacetic acids, chlor ophenols, organic solvents, halomethane, lead, vinyl chloride와 석면 등이 제기된다. 농부와 용접작업, 벌목작업에서 비호지킨림프종이 증가하고, 석면의 경우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최근의 보고도 있다.
- 결론:** 국OO은
 - ①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진단되었는데,
 - ② 비호지킨림프종의 직업적 원인으로 석면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 ③ 노출될 수 있는 발암요인(석면)이 검출되지 않아 이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상기 근로자의 악성림프종은 배관 단열재 설치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